



[산업] 삼성전자 차세대 메모리 '5세대 V낸드' 본격 양산 04



Life

[종합] 청량리 개발 호재에 아파트값 상승 10



조선시대 한양의 젓줄, 판자촌 지나 도심 휴식처 되기까지 한양도성 600년 물길 담은 '청계천의 산역사'

되살아나는 서울

④ '청계천박물관'

청계천 하류 구간에 위치한 두물다리에서 용두공원 쪽으로 걷다 보면 물길을 재현해 놓은 듯한 건물이 눈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우리 튜브처럼 생긴 청계천 문화관은 2005년 청계천복원을 기념해 건립됐다. 청계천 문화관은 2015년 개관 10주년을 맞아 전시 내용을 리뉴얼해 청계천 박물관으로 이름을 바꿔 재개관했다.

청계천 박물관은 성동구 마장동에 연면적 5712.40㎡,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됐다. 박물관은 개천 시대, 청계천·청계로, 청계천 복원사업, 복원 후 10년을 주제로 한 4개의 전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 시대 청계천의 모습은?

지난달 17일 600년 서울의 역사를 간직한 청계천 박물관을 찾았다. 전시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의 속성을 따라 4층에서부터 1층으로 이어졌다.

관람순서를 따라 조선 시대 한양의 젓줄 청계천을 다룬 4층 1존으로 이동했다. 청계천은 지대가 낮은 도심 아래 물길이 모여 생긴 자연 하천으로 조선 시대에는 '개천'으로 불렸다.

폭우가 쏟아지면 다리가 사라지고 집들이 물에 잠겼다. 영조는 1760년 백성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천 바닥을 깊이 파내 물이 잘 흐르도록 하는 준천 작업을 실시했다.

성북구 보문동에서 온 유호형(46) 씨는 "서울시장이 바뀔 때마다 진행된 청계천 공사가 조선 시대 때부터 이어져 왔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다"며 "조선 시대 영조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청계천 준천 공사를 했듯, 시장들도 본인의 업적이 아닌 시민을 위해 청계천을 살피야 한다"고 꼬집었다.

경기도 안산에서 온 채계병(60) 씨는 "오늘 박물관에 오지 않았다면, 청계천 공사 과정 중 장동교가 사라진 것도, 수표교가 장충단공원으로 옮겨진 사실도 몰랐을 것"이라며 "현재의 청계천 모습뿐만 아니라 과거 모습도 알게 돼 좋았다"며 밝게 웃었다.

청계천 박물관 관계자는 "개관 당시에는 청계천 복원공사 전후, 비교적 최근 내용만 다뤘다"며 "전시관을 새롭게 단장한 2015년부터는 청계천의 역사·문화적 의미를 전시에 담아 조



- ① 청계천 박물관 전경.
- ② 청계천 박물관에는 전쟁 이후 청계천 판자촌을 재현해 놓은 전시물이 있다.
- ③ 1420년 세워진 수표교는 청계천 복개공사 때 장충단공원으로 옮겨졌다.

2005년 청계천 복원 기념 건립 시대별 4개 전시구역으로 구성 돼 조선시대부터 미래까지 볼 수 있어

선 시대부터 현재까지 청계천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발의 상처, 어디에?

3층 2존은 청계천 물길이 도로가 되는 과정을 담았다. 6·25 전쟁이 끝난 폐허의 땅, 청계천변에는 피난민들이 내려와 거대한 판자촌을 이뤘다. 급격한 도시화를 거치며 청계천은 도심 속 흉물로 전락했다. 정부는 1958년 청계천 복개 공사를 통해 하천 위를 콘크리트로 덮었다.

이날 박물관을 찾은 김호숙(57) 씨는 "청계천 판자촌에 대한 기억이 아직 남아있는데 박

물관에서 그때 아련한 추억을 되새길 수 있어 반갑고 기쁘다"고 말했다.

가족들과 온 박준영(36) 씨는 "청계천에 관한 한 권의 책을 읽은 것 같다"며 "저는 참 즐거웠는데, 애들이 너무 지루해해서 혼났다"며 어깨를 으쓱 올렸다.

청계천 박물관에는 시청각 자료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전시물이 A4용지 한쪽 분량의 줄글과 함께 진열돼 있었다. 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의 어린이들은 금세 흥미를 잃고 박물관 내부를 뛰어다녔다.

박물관 관계자는 "아이들에게 전시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며 "어린이들을 위한 청계천 판자집 만들기, 보드게임 등의 체험 프로그램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즐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2층에는 청계천 복원부터 10년 후의 미래

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3존에는 청계천을 복원하기까지 서울시정의 변화, 복원 공사 시행 등 사업 전 과정이 전시되어 있다. 4존에는 복원 후 미완의 과제로 남은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가 구상한 미래 모습을 미리 엿볼 수 있다.

노원구 상계동에서 온 윤도(64) 씨는 "청계천에서 쫓겨나 가든파이에 반강제로 입주한 상인들 중 생활고로 투신자살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이야기는 속 빼놔라"며 "박물관 전시 내용에 개발의 장점만 부각해놓고 청계천 복원 계획을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청계천 박물관 관계자는 "청계천 2050 마스터플랜" 계획이 있다는 걸 전시한 것"이라며 "계획의 잘잘못(시비)을 가리지 않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관련 사실만을 보여주려 노력했다"고 항변했다.

/글·사진=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지난달 17일 청계천 박물관을 찾은 시민들이 바닥에 띄워진 서울 지도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